

책의 고품질을 위하여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현암사가 최근 《영한대역 불교성전》이란 책을 냈다. 영한대역판 불교성전이라는 기획도 괜찮은 것이지만,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책에 있다. 4X6판 양장본을 고전적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검은색 클로스가 촉감이 달랐다. 현암사는 이보다 앞서 3권으로 나누어 냈던 《소피의 세계》를 양장합본판으로 만들면서 여기에도 자주색 클로스를 사용했다. 이 클로스는 마치 파스텔색 감같은 분위기를 가졌다. 손끝을 이끌어 부벼보게 하는 호소력이 있었다.

나는 이 자재가 우리 것인가 물어봤다. 불행하게도 아니었다. 독일산 수입품이었고 값은 국산의 3배쯤 된다는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우리의 제책경향은 어떻게 하든 원가를 낮추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책들이 페이퍼백형이 됐다. 4X6배판에 본문을 전부 아티지로 쓴 책까지 제본은 무선철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페이퍼백 이상의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물론 책값도 가능한 한 올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 이는 정부 당국이 자장면처럼 가격인상을 억제해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당국은 책값이 물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일산출판단지에서 파주출판단지로 이전되는 과정에 실제로 있었다).

이때문에 모든 책들은 책으로서의 완제품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책은 그저

내용만 담겨 있으면 되는 제품으로 변했다. 이 사이 우리는 결정적으로 책은 책 그 자체로서 예술품일 수 있다는 감각을 상실했다. 많은 일본도서들은 그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또는 클로스나 면지나 본문용지의 느낌이 감성적이어서 사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일본 독자들은 알고 있다.

영국책과 미국책 사이에서도 영국판이 더 무뚝뚝해 보이긴 하지만 무게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미국판을 산 뒤 다시 똑같은 책의 영국판을 여러권 산 경우가 있다. 하긴 이런 것이 공연한 낭비라고 비난한다면 할 말은 없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재단하지 않은 가제본 형태의 페이퍼백을 낸다. 이는 페이퍼백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각자가 자기나름으로 양장본을 만들게 될 때를 위해 재단의 여지를 남겨 둔다는 또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출판물은 책 그 자체의 완성도를 거의 포기하거나 잊고 있었다. 현암사가 3배의 값을 들여 비싼 책으로 제책 자재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하나의 용감한 도전일지 모른다.

오늘의 변화 속에서 책이 살아남는 길은 책 그 자체로서의 가치이다. 책은 디자인과 각종 자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름대로의 창조적 물체이다. 많은 책들이 내용

때문에 팔리는 것 같지만 실은 이중 상당부분이 책이라는 형태의 창조적 물체로서 팔린다. 그리고 페이퍼백은 원래 값싸게 사서 읽고 버리라는 개념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페이퍼백은 잠깐 문자를 담은 종이스크랩같은 도구이다. 컴퓨터의 세계에서도 책이 살아가려면 책의 미적 완성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책을 손에 쥐고, 한쪽 귀퉁이를 접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접지 않게 만드는 책 또는 줄긋기를 하려다가 줄긋기마저 포기하게 하는 책이 있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바로 책이다.

하긴 이 경험에도 세대간의 차이가 있다. 늙은 사람에게는 자주 있었을 테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아마도 거의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천가지의 색을 자유롭게 보는 새로운 감각적 세대들도 그 나름대로 독보적 질감과 색감이 그다지 막연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책값을 높이더라도 책의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고품질 제책에 접근하는 일은 책의 생존전략에 가장 큰 과제임을 생각해볼 일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3호/1996년 6월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허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먹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

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

전직 출판사 편집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책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소홀해지기 쉬운
교정과 교열은 "목숨을 걸고"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책마다
독특한 표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동아출판서비스 | 서울시 마포구 미포동 35-1
현대빌딩 1011호
전화 701-8336 팩스 701-8335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프로의식을 지닌 2000년대의 주역

경력사원모집(매킨토시)

클·사진·표지디자인

응시자격 : 디자인 경력 1년 이상
전문대졸이상
매킨토시 사용 능숙한 자
제출서류 : 이력서·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자기소개서
제출처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8-6
세경자료사(우편으로 우송바랍니다.)

세경자료사 전화 927-0084/5 0545/6